新羅上代 智證王系의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

李 喜 寬

Ⅰ. 머리말
Ⅱ. 智證王의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의 登場
Ⅲ. 眞興王의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의 動向—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檢討—
Ⅳ. 眞智王·眞平王의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의 推移
Ⅴ. 맺음말

Ⅰ. 머리말

新羅上代에 智證王이 즉위한 이후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의 대다수——智證王·法興王·眞興王·眞智王——는 朴氏族의 女와 혼인하였다. 이점은 그 시기에 나타난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이전의 奈勿王에서 照知王에 이르는 왕들과, 그 이후 中代의 왕들이 모두 金氏族의 女와 혼인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당시의 왕실세력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현상에 대한 검토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특히 朴氏族의 실체와 지지 기반,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시기의 왕실의 혼인 법칙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1] 하지만 정작 朴氏族이 왕비족으로 등장하게 된 배

1)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 金哲埈,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歷史學報』 1·2, 1952.
- 末松保和, 「新羅中古王代考」, 『新羅史の諸問題』, 1954.

경이나 그 당시 그들과 金氏王族과의 정치적 관계 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2] 본고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점을 智證王의 즉위와 그 이후의 왕위계승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朴氏族이 당시의 왕위계승

• 三品彰英, 「骨品制社會」, 『古代史講座』 7, 1963.
• 沈晴俊, 「新羅王室의 婚姻法則」, 『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敎史學論叢』, 1965.
•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합집, 1972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4.
• 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 1973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 李基東, 「新羅 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震檀學報』 40, 1975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4.
• 文暻鉉, 「新羅王族의 骨制」, 『大丘史學』 11, 1976 ; 『新羅史研究』, 1983.
•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1977.
• 金毅圭, 「新羅 母系制社會說에 대한 檢討」, 『韓國史研究』 23, 1979.
• 皮瑛姬, 「Double Descent 理論 適用을 통해서 본 新羅王의 身分觀念」, 『韓國史論』 5, 1979.
•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 1980.
• 李鍾旭, 「新羅 中古時代의 聖骨」, 『震檀學報』 50, 1980.
• _____,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1980.
• _____,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 崔在錫, 「新羅王室의 婚姻制」, 『韓國史研究』 40, 1983.
• 鄭孝雲, 「新羅中古時代의 王權과 改元에 관한 研究」, 『考古歷史學志』 2, 1986.

2) 朴氏族이 왕비족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 朴氏王妃族과 金氏王族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李基白과 李鍾旭, 그리고 鄭孝雲이 언급한 바가 있다. 즉 李基白은 葛文王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 시기에는 金氏王族, 특히 奈勿王系의 여러 家系를 핵심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王妃族 등의 세력도 연합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氏는 왕비족이 王弟들을 시조로 하는 家系들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p. 23). 한편 李鍾旭은 이 시기에는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 왕들이 구태여 金氏族과 족내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지위를 견제할 수 있는 金氏族內婚을 피하고 세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던 朴氏族과 혼인하였다고 하였다(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pp. 209~210). 반면에 鄭孝雲은 朴氏族이 왕비족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鄭孝雲, 「新羅中古時代의 王權과 改元에 관한 研究」, pp. 16~17).

에 깊숙히 관여한 경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그들이 왕비족으로 등장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고, 上代末期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다른 민족의 유사한 현상에 대한 사회인류학적인 지식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 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학문 분야에서 이야기되는 이론을 가지고 직접 이 시기의 왕위계승 원리나 혼인 법칙 등을 해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이론 자체가 新羅와는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성숙도가 다른 사회에서 검증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新羅의 경우와 같이 발달된 정치조직을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원리·법칙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3]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智證王의 왕위계승과 朴氏王妃族의 등장에 관한 점이다. 둘째, 眞興王의 왕위계승과 이를 둘러싼 朴氏王妃族의 동향이 어떠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째, 眞智王·眞平王의 왕위계승과 朴氏王妃族의 추이에 대한 점이다.

본고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新羅上代 왕실 세력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보다 심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3) 이점에 대해서는 李鍾旭이 「물론 왕실내의 친족조직이 있어 씨족이나 가계의 원리가 작용하기도 하였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왕위가 안정되고 초월화되어 나갔고 또 왕권 자체가 강화되면서 왕위계승에 있어 씨족·가계의 원리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더욱 큰 작용을 한다」고 하여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p. 105).

Ⅱ. 智證王의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의 登場

新羅上代 金氏族이 왕위를 계승해 나아가기 시작한 이후에 朴氏族은 智證王의 즉위와 더불어 처음으로 왕비족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朴氏族이 어떻게 왕비족이 되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智證王의 왕위계승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智證王의 왕위계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 智證痲立干立 姓金氏 諱智大路或云智度路又云智哲老 奈勿王之曾孫 習寶葛文王之子 照知王之再從弟也 母金氏鳥生夫人 訥祇王之女 妃朴氏延帝夫人 登欣伊湌女 王體鴻大膽力過人 前王薨 無子 故繼位 時年六十四歲(『三國史記』 4 新羅本紀 智證痲立干 원년)

즉 智證王은 前王인 照知王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를 이었다고 한다.[4] 이 기록에 따르면 智證王의 왕위계승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三國史記』 撰者의 독자적인 해석이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智證王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음에 보이는 迎日 冷水里碑의 銘文(前面)이 이를 암시해 준다.[5]

---

4) 그러나 照知王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三國史記』 3 新羅本紀 照知痲立干 22년 9월條에는 照知王과 捺已郡人 波路의 딸 碧花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 『三國史記』 撰者는 그 아들이 庶子로서 왕위계승권이 없었기 때문에 照知王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하지만 照知王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A기록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5) 迎日 冷水里碑에 대해서는 한국고대사연구회에서 1989년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 연구 성과는 『迎日 冷水里 新羅碑(가칭)의 綜合的 檢討』, 1989에 실려 있다.

B 斯羅喙斯夫智王乃智王此二王教用珍而
麻村節居利爲證尒令其得財教耳
癸未年九月廿五日沙喙至都盧葛文
王斯德智阿干支子宿智居伐干支
本波頭腹智干支斯波暮斯智干
支此七王等共論教用前世二王教
爲證尒取財物盡令節居利
得之教耳別教節居利若先
死後令其弟兒斯奴得此財
教耳別教未鄒斯申支
此二人後莫更導此財

이 비를 세운 해인 癸未年은 503년(智證王 4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6] 그리고 이 명문에 나오는 至都盧가 智證王과 동일 인물이

6) 迎日 冷水里碑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鄭求福이 자세히 검토한 바 있다(鄭求福, 「迎日 冷水里 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 『迎日 冷水里 新羅碑(가칭)의 綜合的 檢討』, 1989, pp.12~15). 氏는 이 碑의 건립 연대인 癸未年을 503년(智證王 4년)으로 추정하였는데, 필자도 氏의 추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金昌鎬는 503년에는 이미 智證王이 왕위에 올랐던 때이므로 葛文王의 칭호를 썼을 리가 없다는 점과, 이 碑에 나오는 節居利가 斯夫智王—實聖王으로 추정 ——代에 教를 받고 503년 경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의 나이가 100세를 훨씬 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 碑의 건립 연대를 503년으로 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한 干支를 올려 443년으로 추정하였다(金昌鎬, 「迎日 冷水里 新羅碑의 建碑 年代와 目的」, 『迎日 冷水里 新羅碑(가칭)의 綜合的 檢討』, 1989, pp.33~35). 하지만 氏가 제기한 첫번째 의문은 당시 智證王이 葛文王을 칭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다. 필자는 본장에서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의문은 氏가 이 碑의 前面 제1행과 제2행의 내용을 오해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氏는 이 부분을 「斯羅 喙部 斯夫智王과 乃智王의 此二王이 教用했다. 珍而麻村의 節居利를 위한 證尒令이다. 財를 얻는 教이다」라고 해석하였다(金昌鎬, 「迎日 冷水里 新羅碑의 建碑 年代와 目的」, p.30).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前面 제1행과 제2행의 내용이 제3행 이하의 내용과 별개의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전자는 후자의 내용을 함축한 일종의 表題라고 믿어지는 것이다(이것은 1989년도 2학기 西江大學校 大學院 李鍾旭敎授 세미나 시간에 토론한 바를 통하여 얻은 결론임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斯羅 喙部 斯夫智王과 乃智王, 이 두 왕의 教로써 珍而麻村 節居利(의 말)을 증거로 삼아 그—節居利—로 하여금 財를 얻게한 教이

라는 데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7]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점들을 통하여 매우 흥미로운 한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智證王이 왕위를 계승한 지 약 3년이 지난 당시에도 國王을 칭하지 못하고 葛文王으로 불리웠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가 국왕을 칭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곧 智證王의 왕위계승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8]

이점은 智證王과 前王인 照知王과의 혈연 관계를 살펴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그것은『三國史記』와『三國遺事』에 약

〈圖 1〉 智證王과 照知王의 혈연 관계

ⓐ『三國史記』에 의거

奈勿王 ─ 訥祇王 ─ 慈悲王 ─ 照知王
奈勿王 ─ 卜好
奈勿王 ─ 未斯欣
奈勿王 ─ ○○ ─ 習寶葛文王 ─ 智證王

ⓑ『三國遺事』에 의거

奈勿王 ─ 訥祇王 ─ 慈悲王 ─ 照知王
奈勿王 ─ 寶海
奈勿王 ─ 美海(美吐喜)
奈勿王 ─ 期寶葛文王 ─ 智證王

다」. 즉 節居利에게 내려진 敎는 제 1 행에 나오는「此二王敎」가 아니라 제 2 행에 나오는「敎」였던 것이다. 전자는, 제 7 행과 제 8 행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前世의 二王이 내린 것으로서 당시「此七王等」이 共論하여 節居利에게 敎를 내리는 데 기준이 되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節居利는「此二王敎」, 즉「前世二王敎」를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 서면, 우리가 金昌鎬의 견해에 따를 수 없음은 물론이다.

7) 단, 金昌鎬는 智證王이 葛文王이었다는 기록이 문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至都盧葛文王을 智證王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金昌鎬,「迎日 冷水里 新羅碑의 建碑 年代와 目的」, pp. 34~35). 그러나『三國史記』4 新羅本紀 智證痲立干 원년條를 보면 그가 智證王을 가리킨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8) 鄭求福도 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鄭求福,「迎日 冷水里 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 pp. 14~15).

간 다르게 나타나 있다.[9] 〈圖 1〉은 양자의 혈연 관계를 두 사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圖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照知王은 奈勿王의 직계 후손이었다. 반면에 智證王은 이미 訥祇王代에 거기에서 傍系化한 家系 출신이었다. 그리고 양자는, 〈圖 1-ⓐ〉에 따르면 再從兄과 再從弟의 관계였고, 〈圖 1-ⓑ〉에 의하면 再從姪과 再從叔의 관계였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기록을 살펴 보면 智證王이 照知王 사후의 왕위계승에서 그 서열이 가장 앞섰던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C ① 照知(一云毗處)麻立干立 慈悲王長子 母金氏 舒弗邯未斯欣之女 妃善兮夫人 乃宿伊伐湌女也 炤知幼有孝行 謙恭自守 人咸服之(『三國史記』 3 新羅本紀 照知麻立干 원년)

② 慈悲麻立干立 訥祇王長子 母金氏 實聖之女也 (『三國史記』 3 新羅本紀 慈悲麻立干 원년)

③ 第二十一毗處麻立干 (一)作(炤)知王 金氏 慈悲王第三子 母未欣角干之女 己未立理二十一年 妃期寶葛文王之女 (『三國遺事』 1 王曆)

C①에는 照知王이 慈悲王의 長子로, C③에는 제 3 子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어느 기록을 취해야 할 것인지는 갑자기 판단이 서지 않는다.[10] 하지만 어느 쪽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照知王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로부터 그들의 子, 즉 照知王의 姪이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믿는다.

9) 智證王과 照知王의 혈연 관계에 대해서는 李基東과 李鍾旭의 자세한 검토가 있다. 李基東은 『三國遺事』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pp. 66~71), 반면에 李鍾旭은 『三國史記』의 기록이 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보았다(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pp. 31~33 및 pp. 85~93).

10) 당시의 왕위계승이 長子 우선의 父子相續이 원칙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p. 22 참조), 慈悲王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고 照知王이 長子로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착오로 말미암아 『三國遺事』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照知王의 父인 慈悲王이 訥祇王의 長子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C②), 照知王에게 叔父가 있었으며, 그들의 子와 孫, 즉 照知王의 從弟와 從姪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智證王의 왕위계승에 관한 『三國史記』의 기록(A)에 撰者의 주관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11] 照知王에게 왕위를 계승할 子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까닭은, 智證王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해 감에 따라 왕실로 부터 멀어져 간 그들은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헤아려진다.[12]

그런데 이들은 모두 訥祇王의 후손으로서 照知王과의 혈연 관계가 智證王보다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智證王이 照知王의 再從弟였거나〈圖 1-ⓐ〉再從叔이었거나 간에〈圖 1-ⓑ〉, 당시의 일반적인 왕위계승 방법이었던 父子相續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13] 照知王에게 왕위를 계승할 子가 있었다면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의 姪과 從姪도 智證王보다 왕위계승 서열이 앞선 자들이었다. 설사 兄弟相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智證王보다 서열이 앞선 자들로 照知王의 弟와 從弟들이 있었다. 결국 智證王은 당시의 왕위계승 서열을 무시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물론 智證王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는지를 알려 주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非常한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믿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政變을 일으켜 照知王을 축출하고 왕위를 차지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여겨진다.[14]

---

11) 註 4) 참조.

12)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分枝化된 奈勿王의 다른 王子들의 각각의 리니이지 系譜는 그 자체 傳承의 중요성이 멀하고 또 복잡하여 자연적으로 그 기억에 여러가지 착오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推定된다」고 한 李基東의 견해가 크게 참고된다(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p. 72).

13) 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p. 22 참조.

14) 文暻鉉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文暻鉉, 「迎日 冷

智證王이 왕위계승 서열을 무시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자신보다 왕위계승 서열이 앞선 자들을 누를 수 있을 정도의 강대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智證王이 어떻게 그와 같은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그런데 다음 기록이 우리의 의문을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D ① 第二十二智哲老王 姓金氏 名智大路 又智度路 諡曰智證 諡號始于此 又鄕稱王爲麻立干者 自此王始 王以永元二年庚辰即位(或云辛巳 則三年也) ② 王陰長一尺五寸難於嘉耦 ③ 發使三道求之 ④ 使至牟梁部多老樹下 見二狗嚙 一屍塊如皷大爭嚙其兩端 訪於里人 有一小女告云 此部相公之女子洗濯于此 隱林而所遺也尋其家檢之 身長七尺五寸 具事奏聞 王遣車邀入宮中 封爲皇后 群臣皆賀(『三國遺事』 1 紀異 智哲老王)

이 기록은 智證王의 혼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필자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눈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智證王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64세에 왕위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A) 이점은 다툴 일이 못된다.

이 기록에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智證王이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3道에 사신을 보내기까지 하였다는 대목이다(D②, ③). 이는 智證王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매우 고심하였음을 말해 준다. D②에서는 그 이유가 智證王의 陰莖이 1尺 5寸이나 되어 마땅한 배우자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신체적인 특징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흔히 있던 일이었으므로[15] 그것은 실제적인 이유로서 문제삼을 일이 못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智證王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고심한 현실적인 이유는 그가 혼인을 통하여 유력한 血族集團과 정치적인 연합 관계를 맺기

水里 新羅碑에 보이는 部의 性格과 政治運營問題」, 『迎日 冷水里 新羅碑(가칭)의 綜合的 檢討』, 1989, p.57).

15) 申瀅植, 「三國時代 王의 性格과 地位」,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1984, pp. 87~91 참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점은 근대 이전 시대에는 혼인이 그 당사자들의 결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던 혈족집단 사이의 결속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곧 이해가 가리라 믿는다.[16] 자연히 3道에 사신을 보낸 것도(D③) 그와 같은 연합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D④에 따르면, 智證王은 牟梁部 相公의 女와 혼인하였다. 그 相公은,

E 智證痲立干立 姓金氏 諱智大路或云智度路又云智哲老 奈勿王之曾孫 習寶葛文王之子 照知王之再從弟也 母金氏鳥生夫人 訥祇王之女 妃朴氏延帝夫人 登欣伊湌女(『三國史記』 4 新羅本紀 智證痲立干 원년)

라고 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登欣伊湌을 가리킨다.[17] 그는 朴氏族이었다(E). 더구나 그는 伊湌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朴氏族 가운데 상당한 유력자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智證王은 그와 같은 登欣伊湌의 女와의 혼인을 통하여 朴氏族과 정치적 연합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 智證王의 세력 기반을 확대하고 또한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智證王이 여러 혈족집단 가운데 朴氏族과 정치적 연합 관계를 맺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점은 당시 智證王과 朴氏族이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을 살펴 봄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訥祇王이 즉위한 이후부터 약 1세기에 걸친 시기의 왕위는 奈勿王 직계 후손들이 독점하였다. 그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父子相續의 원칙에 의거하여 왕위를 계승해 나갔다. 이에 따라 왕위계승권자의 위치에서 밀려난 王弟들과 그 후손들의 정치적 지위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 아닐까 한다. 訥祇王代에 奈勿王 직계에서 방계화된 家系에 속해 있던 智證王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圖 1 참조). 즉, 奈勿王의 직계 후손들이 왕

16)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pp. 194~195 참조.
17) 『三國遺事』 1 王曆에는 登許角干으로 되어 있다.

위를 독점해 나가면서 智證王과 그의 후손들은 정치적으로 더욱 소외되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이점이 智證王으로서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으리라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당시 朴氏族의 처지도 智證王의 경우와 크게 달랐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朴氏族이 赫居世王代에서 阿達羅王代에 이르기까지——단 脫解王代는 제외——新羅의 왕족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은 昔氏族에게 왕위를 넘겨 준 후에도 때에 따라 王妃族 또는 王母族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訥祇王代부터 奈勿王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해 가면서 이들의 처지는 크게 변화되었다. 즉 이 시기의 왕들이 왕실의 존엄성을 높히고 나아가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金氏族內婚을 함으로써 朴氏族은 이제 그와 같은 지위마저 누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18] 이에 따른 朴氏族의 불만도, 智證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지 않았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智證王과 朴氏族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실로부터 점차 소외되어 가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대한 그들의 불만 또한 작지 않았는데, 그것은 奈勿王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하고 아울러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태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의 구체적인 대상은 곧 그 시기에 왕위를 이어간 奈勿王의 직계 후손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智證王과 朴氏族이 정치적인 연합 관계를 맺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이것은 그 이후 智證王과 朴氏族의 연합 세력이 奈勿王 직계 후손들과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길을 걸어갈 것임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양자의 정치적 대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智證王이 자신보다 왕위계승 서열이 앞섰던 奈勿王 직계 후

18) 金氏族內婚의 성격에 대해서는,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硏究』, p. 206 참조.

손들을 누르고 照知王의 왕위를 계승함으로서 양자의 대립은 智證王과 朴氏族 연합 세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 결과 왕위는 智證王의 家系 ——이는 智證王系 家系라고 하여 좋을 것이다[19]—— 에서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朴氏族은 왕비족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智證王의 왕위계승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서열을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奈勿王 직계후손들의 불만은 누구보다도 컸을 것이다. 이점은 그들이 智證王보다 왕위계승 서열이 앞서 있는 자들이었다는 앞에서의 지적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라 믿는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智證王系 家系와 朴氏族의 연합세력이 정권을 유지해 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0]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奈勿王 직계 후손을 중심으로 한 불만 세력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智證王系 家系와 朴氏族의 연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불만이 자신들로부터 왕위를 앗아간 智證王系 家系와 朴氏族의 연합 세력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으로부터 쉽게 추리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智證王系 家系와 朴氏族은 그들의 반발에 대하여 함께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朴氏族이,

F 法興王立 諱原宗 智證王元子 母延帝夫人 妃朴氏 保刀夫人 王身長七尺 寬厚愛人 (『三國史記』 4 新羅本紀 法興王 원년)

이라고 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智證王代에 이어 法興王

19) 智證王系 家系의 성립에 대해서는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pp. 75~82 참조.

20) 迎日 冷水里碑의 명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智證王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서기 500년 이후에도 한동안 명실상부하게 국왕의 위에 오르지 못하고 葛文王을 칭했던 것도 奈勿王 직계후손들의 불만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필자는 이점에 대하여 別稿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代에도 왕비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Ⅲ. 眞興王의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의 動向—蔚州 川前里 書石 銘文의 檢討—

智證王代에 왕비족으로 등장한 朴氏族은 法興王代를 거쳐 眞興王代에도 자신들의 씨족에서 왕비를 배출하였다. 본장에서는 朴氏族이 眞興王代에도 왕비족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는지를 眞興王의 왕위계승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眞興王의 왕위계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G ① 眞興王立 諱彡麥宗或作深夫 時年七歲 法興王弟葛文王立宗之子也 母夫人金氏 法興王之女 妃朴氏思道夫人 王幼少 王太后攝政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興王 원년)

② 第二十四眞興王 名彡麥宗 一作深□ 金氏 父即法興之弟立宗葛文王 母只召夫人 一作息道夫人朴氏 牟梁里英失角干之女 終時亦剃髮而逝 庚申立 理三十七年 (『三國遺事』 1 王曆)

③ 第二十四 眞興王 即位時年十五歲 太后攝政 太后乃法興王之女子 立宗葛文王之妃 終時削髮 被法衣而逝 (『三國遺事』 1 紀異 眞興王)

즉 眞興王의 諱는 彡麥宗 또는 深麥夫였으며, 法興王의 弟인 立宗葛文王의 子였다. 말하자면 그는 法興王의 姪로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된다. 그리고 즉위할 당시 그의 나이는 G①에는 7세로, G②에는 15세로 되어 있다. 즉 그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眞興王의 왕위계승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 蔚州 川前里書石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그 書石의 銘文을 통하여 그의 왕위계승에 대하여 좀더 천착해 보기로 하자.[21]

21) 川前里書石 銘文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蔚州 川前里書石의 명문은 乙巳年銘과 己未年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22] 거의 모든 글자가 판독되었다. 다음에 제시한 판독문은 그것을 바탕으로 필자가 새롭게 읽은 몇 글자를 덧붙인 것이다.

명문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새롭게 읽은 글자와 판독상 논란이 되어온 몇 글자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23] 먼저 乙巳年銘의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제6행 제3자는 이제까지 예외없이 「友」로 읽어 왔다. 하지만 그 글자를 자세히 살펴 보면 상부가 매우 복잡한 획으로 되어 있다. 이점을 고려하면 이 글자는 오히려 「来」——「來」와 同字——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앞 자인 「遊」와 더불어 「遊來」, 즉 「놀러 오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닐까 헤아려지는 것이다. 乙巳年銘의 제3행과 己未年銘의 제3행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쓰인 「遊來」의 例가 보인다는 점이 이를 더욱 뒷받침하여 준다고 믿는다. 제7행 제4자는 「主」 또는 「王」으로 읽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글자의 위에서 아래로 그은 것처럼 파여 있는 것은 획이 아니라 흠집이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자는 「三」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 黃壽永, 「新羅의 誓(書)石」, 『東大新聞』 1971년 5월 10일자.
- 武田幸男, 「金石文資料からみた新羅官位制」, 『江上波夫教授古稀紀念論集』 歷史篇, 1977.
- 金龍善,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研究」, 『歷史學報』 81, 1979.
- 李文基, 「蔚州 川前里書石 原·追銘의 再檢討」, 『歷史教育論集』 4, 1983.
- 金昌鎬, 「新羅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 (Ⅰ)」, 『大丘史學』 22, 1983.
- 田中俊明, 「新羅の金石文 第10回 蔚州川前里書石·乙巳年原銘」, 『韓國文化』 58, 1984.
- _____, 「新羅の金石文 第11·13回 蔚州川前里書石·己未年追銘 (一)·(二)」 『韓國文化』 61·63, 1984·1985.
- 문경현, 「蔚州 新羅書石 銘記의 新檢討」, 『慶北史學』 10, 1987.

22) 乙巳年銘과 己未年銘은 각각 原銘과 追銘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필자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전자와 후자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銘文의 성격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두 銘文을 干支로 구분하여 부르기로 하였다.

23) 〈表 1·2〉의 判讀대조표를 참조하라.

己未年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글자로는 우선 제3행 제1자를 들 수 있다. 이 글자는 이제까지 「三」으로 읽는 데 이의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王」으로 읽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글자의 중앙 부분에 획처럼 보이는 선들은 흠집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기존의 견해에 따라 「三」으로 읽었다. 제7행 제9자는 글자의 주위에 흠집이 많아서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深」으로 읽어서 좋지 않을까 한다. 단 이 글자의 아랫 부분의 획을 흠집으로 볼 경우 「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

〈川前里書石 乙巳年銘〉

字 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乙	巳												
2	沙	喙	部	□										
3	文	王	奄	遊	來	始	□	見	谷					
4	之	古	□	尤	名	谷	善	石	得	遣	□			
5	□	以	下	爲	名	書	石	谷	字	作	之			
6	并	遊	來	妹	□	□	光	妙	於	史				
7	部	女	郎	三	之									
8	食	多	煞	作	功	人	尒	利	智	奈	麻			
9	悉	得	斯	智	大	舍	帝	智	作	食	人			
10	昧	□	智	壹	吉	干	支	妻	居	知	戶	奚	夫	人
11	眞	宍	智	沙	干	支	婁	阿	兮	牟	弘	夫	人	
12	作	書	人	慕	丶	尒	智	大	舍	帝	智			

(凡例) □은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이고, □안의 글자는 추정이 가능한 글자임. 이하 같음.

〈川前里書石 己未年銘〉

字 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過	去	乙	巳	年	六	月	十	八	日	昧	沙	喙								
2	部	徙	夫	知	葛	文	王	妹	於	史	鄀	女	郎								
3	三	共	遊	來	以	後	尒	年	八	□	年	過	去	妹	王	考					
4	妹	王	過	人	丁	巳	年	王	過	去	其	王	妃	只	沒	尸	兮	妃			
5	愛	自	思	己	未	年	七	月	三	日	□	王	与	妹	共	見	書	石			
6	叱	見	來	谷	此	時	共	三	來	另	即	知	太	王	妃	夫	乞				
7	支	妃	徙	夫	知	王	子	郎	深	昧	夫	知	共	來	此	時	□				
8	作	功	臣	喙	部	知	□	夫	知	沙	干	支	泊	六	知						
9	居	伐	干	支	□	臣	丁	乙	尒	知	奈	麻	作	食	人	眞					
10	宍	知	滅	珎	于	支	婦	伺	六	年	呼	夫	人	□	夫	知	居	伐	于	支	婦
11	一	利	□	次	夫	人	居	□	知	□	□	□	婦	沙	□	□	夫	人	共	作	之

지만, 그 음은 같다. 같은 행의 제10자는 이제까지 「昧」 또는 「麥」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이 글자의 좌측 획은 「田」이 아니라 「日」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우측 획도 「犬」보다는 「未」에 가깝다. 따라서 이 글자는 「昧」로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 밖에도 문제가 되는 글자가 더러 있으나 그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본고에서의 논의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판독대조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表 1·2)

이제 앞에서 판독한 바를 토대로 川前里書石 명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乙巳年銘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乙巳年銘은 다음과 같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 제 1 단락 : 제 1 행 제 1 자(乙)부터 제 4 행 제 1 자(之)까지
- 제 2 단락 : 제 4 행 제 2 자(古)부터 제 5 행 제11자(之)까지
- 제 3 단락 : 제 6 행 제 1 자(并)부터 제 7 행 제 5 자(之)까지
- 제 4 단락 : 제 8 행 제 1 자(食)부터 제12행 제11자(智)까지

〈表 1〉 川前里書石 乙巳年銘 判讀 대조표

行	字	黃壽永	武田幸男	金龍善	李文基	金昌鎬	田中俊明	任昌淳	文暻鉉	筆者
3	2	□	□	王	王	王	王	□	王	王
3	7	得	得	得	得	得	得	得	得	□
4	3	谷	谷	谷	谷	谷	谷	□	谷	□
4	9	得	得	得	得	得	得	得	得	得
4	12	□	□	□	□	□	□	□	書	□

5	1	之	之	乙	乙	々	之	凡	之	□
5	11	□	□	□		□	□	衆	之	之
6	3	友	王	友	友	友	友	友	友	來
6	5	麗	麗	麗	麗	麗	聖	□	麗	□
6	6	德	德	德	德	德	慈	□	德	□
6	10	史	史	史	史	史	□	□	史	史
7	1	郎	郎	郎	郎	郎	郎	郎	郎	郎
7	2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女	女
7	4	主	主	主	三	主	三	主	王	三
8	1	原	原	食	食	食	食	便	原	食
9	2	得	得	得	得	得	得	得	得	得
10	1	榮	榮	榮	榮	榮	榮	榮	宋	昧
10	2	知	知	知	知	知	知	□	知	□

〈表 2〉 川前里書石 己未年銘 判讀 대조표

行	字	黃壽永	武田幸男	金龍善	李文基	金昌鎬	田中俊明	任昌淳	文暻鉉	筆者
2	2	徒	徒	徒	徙	徒	徒	從	徙	徙
2	5	□	□	□	葛	葛	□	尊	葛	葛
2	12	安	安	安	安	安	安	安	女	女
3	1	三	三	三	三	三	三	□	王	三
3	7	尒	□	□	□	□	□	□	今	尒
3	10	己	己	巳	己	己	□	百	巳	□
4	5	乙	□	乙	乙	乙	丁	□	丁	丁
4	15	須	須	須	須	沒	沒	沒	沒	沒
5	11	興	興	興	興	□	其	大	其	□
6	8	三	三	三	三	三	三	□	王	三
6	9	□	□	□	來	來	來	來	來	來
7	3	徒	徒	徒	徙	徒	徒	禮	徙	徙
7	7	导	导	导	导	导	子	手	子	子

7	9	梁	□	梁	梁	□	□	喙	深	深
7	10	畎	□	畎	畎	□	□	□	麦	味
7	17	醎	□	醎	醎	醎	□	醎	醎	□
8	7	礼	礼	禮	禮	礼	礼	□	禮	□
9	5	礼	礼	禮	禮	□	□	□	禮	□
10	8	伺	伺	阿	阿	阿	阿	□	阿	伺
10	10	牟	牟	牟	牟	牟	牟	年	牟	年
11	3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
11	9	次	次	次	次	次	次	次	知	次
11	10	珎	珎	沙	□	□	沙	□	居伐	□
11	11	□	□	干	干	干	干	干	干	□
11	12	夫	夫	支	支	支	支	支	支	□
11	14	沙	沙	沙	沙	沙	沙	沙	沙	沙
11	15	爻	爻	爻	父	爻	爻	□	爻	□
11	16	功	功	功	功	功	功	□	功	□
11	18~19 사이	分	分	分	分	分	□	□	□	□

제 1 단락은 많은 글자들이 마멸되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己未年銘의 제1~3행에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 단락은 「遊來」한, 즉 놀러 온 시기와 주인공이 각각 乙巳年과 徙夫知葛文王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乙巳年이 法興王 12년(525)에 해당되며, 徙夫知葛文王이 眞興王의 父인 立宗葛文王이었다는 데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24] 이렇게 보면, 제 1 단락은 「法興王 12년(6월 18일 새벽) 沙喙部의 立宗葛文王이 찾아 놀러 와서 처음 (사이 1자 缺) 본 谷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 2 단락에서는 立宗葛文王이 「遊來」한 谷이 「書石谷」으로 불리게 된 연유를 설명하였다. 缺字때문에 해석에 난점이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것으로 생각된다. 「옛날에는 (사이 1자 缺) 이름이 없는 谷이었는데 좋은 돌을 얻어 (사이 1자 缺)을 만들고 (사이 1자 缺) 이하를 이름하여 書石谷이라 하고 글자를 새겼다」.

제 3 단락은 同行人에 대한 설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논란은 제 7 행 제 4 자인 「三」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3명의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於史郡女郎三」이라는 인명의 末字로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물론 이 단락 안에 3명의 인물에 해당하는 인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거기에서 인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於史郡女郎」뿐이다.[25] 그러므로 이제까지 논란이 되어 온 「三」은 후자의 경우로 해석해

24) 이점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金龍善인데(金龍善,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硏究」, pp. 18~20), 대부분의 학자들이 氏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단지 金昌鎬만이 徙夫知葛文王과 立宗葛文王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추정하였으나(金昌鎬, 「新羅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 (Ⅰ)」, pp. 9~10), 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된다.

25) 이제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光妙를 麗德光妙로 판독하고 그것을 인명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시 이와 같이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美辭麗句로 된 인명을 썼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文暻鉉, 「蔚州 書石銘記의 新檢討」, p. 14 참조). 설사 이것을 인명으로 본다고 하여도 제 3 단락에서 3명의 인명을 찾을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26] 그렇다면 이 단락은「함께 놀러 온 妹인 (사이 2자 缺)光妙한 於史郡女郎三이다」라는 내용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谷을 書石谷이라 이름하고 글자를 새긴 사람이 바로 立宗葛文王과 함께 놀러온 妹인 於史郡女郎三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나오는「妹」가 立宗葛文王의 妹를 가리킨다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제 4 단락은 수행인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 대부분이 수행인들의 역할·인명·관등을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제 己未年銘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己未年銘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단락 : 제 1 행 제 1 자(過)부터 제 4 행 제 4 자(人)까지
○제 2 단락 : 제 4 행 제 5 자(丁)부터 제 6 행 제 4 자(谷)까지
○제 3 단락 : 제 6 행 제 5 자(此)부터 제 7 행 제14자(來)까지
○제 4 단락 : 제 7 행 제15자(此)부터 제11행 제21자(之)까지

제 1 단락은 지난 일에 대한 회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회상의 대상은 乙巳年—法興王 12 년(525)—에 書石谷에 놀러 왔던 立宗葛文王과 그의 妹인 於史郡女郎三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끝부분에 나오는「妹·王」도 자연히 이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7] 그리고 제 4 행에 보이는「過人」은 지난 사람, 즉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28]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지난 法興王 12 년(525) 6 월 18 일 새벽에 沙喙部의 徙夫知葛文王과 (그의) 妹인 於史郡女郎三이 함께 놀러 온 이후 올해로 (사이 1 자 缺)년이

26) 이 경우 인명이 6 자나 된다는 점이 어색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丹陽 赤城碑에도「奈弗耽郝失制」라는 6 자의 인명이 나오므로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27) 이렇게 볼 경우,「王」과「妹」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이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妹가 王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앞에 쓴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단정할 일은 못된다.

28) 金龍善,「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研究」, p. 24.

지나갔는데, 妹(於史郡女郎三)와 王(立宗葛文王)을 생각하지만 妹와 王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제 2 단락은 書石谷에 행차하게 된 연유를 설명한 대목이다. 제 4 행에 보이는 「王」은 立宗葛文王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뒤이어 나오는 「其王妃」도 立宗葛文王妃를 지칭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같은 행에 나오는 「過去」는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過去」의 용례는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 造像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29] 그리고 제 5 행에 나오는 「王」과 「妹」는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立宗葛文王과 그의 妹인 於史郡女郎三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丁巳年」과 「己未年」은 「乙巳年」—法興王 12 년(525)—이후의 어느 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法興王 24 년(537)과 同王 26 년(539)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30] 이렇게 볼 때, 이 단락은 「法興王 24 년(537)에 立宗葛文王이 죽자 그 王妃인 只沒尸兮妃가 (그와의) 사랑을 스스로 생각하여 法興王 26 년(539) 7 월 3 일(사이 1 자 缺)에 立宗葛文王과 (그의) 妹(於史郡女郎三)가 함께 본 書石을 보러 谷에 왔다」와 같이 해석될 것이다. 여기에서 己未年 행차의 주인공이 乙巳年 행차의 경우와 달리 立宗葛文王妃였음을 알 수가 있다.

제 3 단락은 동행인에 대한 설명이다. 제 6 행에 「共三來」, 즉 모두 3 명이 왔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행차의 주인공인 立宗葛文王妃를 제외하면 결국 동행인은 두 명이 되는 셈이다. 그들이 另即知太王의 妃인 夫乞支妃와 立宗葛文王(徙夫知葛文王)의 子郎(아들)인 深昧夫知였다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전자를 法興王妃로 보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31] 그리고 후자는 立宗葛文王의 아들로 후에 眞

29) 南豊鉉,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 造像記의 吏讀文 考察」, 『新羅文化』 5, 1988, p.7 참조.

30) 丁巳年과 己未年의 연대에 대해서는 金龍善,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研究」 pp.19~21 참조.

31) 金龍善이 夫乞支妃를 法興王妃로 본 이후 모든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金龍善,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研究」, pp.18~19).

興王이 되는 深麥夫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32]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락에서 眞興王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행차에 동행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셈이다. 이 단락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 때 모두 세 명이 왔는데, 法興王妃인 夫乞支妃와 立宗葛文王의 아들인 深昧夫知가 함께 왔다」.

제 4 단락은 乙巳年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행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 부분은 마멸이 심하여 판독이 곤란한 글자가 많지만 해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川前里書石 명문을 통하여 우리는 法興王 12년(525)에는 立宗葛文王과 그의 妹인 於史郡女郎三이, 同王 26년(539)에는 立宗葛文王妃가 자신의 아들인 深昧夫知를 데리고 法興王妃와 함께 書石谷에 행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보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法興王 26년(539)의 행차이다.

이 행차를 한 때 —法興王 26년(539) 7월 3일—는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法興王이 죽기 1년 전에 해당하며, 그 시기의 『三國史記』 기록에 1년의 오차가 있음을 인정하면[33] 法興王이 죽던 해 같은 달이 된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와 같은 시점에서 立宗葛文王妃가 주도한 행차가 지닌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己未年銘에는 立宗葛文王이 죽은 후 그의 妃가 그와의 사랑을 스스로 생각하여 書石谷에 행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 행차의 이유로서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乙巳年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書石谷은 立宗葛文王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행차의 의미는 그렇게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거기에 法興王妃가 동행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리라 믿는다. 즉 그 행차가 단지 立宗葛文王妃가 立宗葛文王과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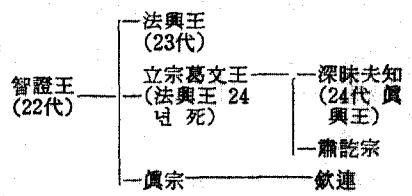
32)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興王 원년.
33) 이 시기의 『三國史記』 기록의 1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金龍善,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研究」, p. 22의 註 33) 참조.

나간 사랑만을 생각하여 마련한 것이었다면, 거기에 法興王妃가 동행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단지 그와 같은 의미의 행차였을 경우, 거기에 굳이 法興王妃가 동행할 까닭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국 그 행차에는 또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法興王 26년(539)의 행차가 法興王의 죽음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앞서의 지적을 염두에 두면, 그 행차는 立宗葛文王妃의 사랑 뿐만 아니라 法興王 사후의 왕위계승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34] 法興王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는 점,[35] 그 행차에 따라간 深味夫知가 바로 왕위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다른 동행인인 法興王妃가 그 왕위계승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점을 좀더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하여 法興王을 중심으로 한 왕실 계보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36]

〈圖 2〉 왕실계보도



〈圖 2〉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의 일반적인 왕위계승 방법

34) 文暻鉉도 이점을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다(文暻鉉, 「蔚川 新羅 書石銘記의 新檢討」, p. 54).

35) 法興王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거니와 그의 뒤를 이어 그의 姪인 眞興王이 왕위를 계승한 점으로 보아도 法興王에게는 아들이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36) 이 계보는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p. 77의 表 4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인 父子相續의 원칙에서 보면 法興王 사후의 왕위는 그의 姪인 深昧夫知가 이을 공산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智證王의 왕위계승을 통하여 그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 바로 眞宗이다. 그는 法興王의 弟였으며, 또한 深昧夫知의 叔父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혈연 관계만으로 보아도 眞宗은 深昧夫知의 왕위계승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게다가 당시 深昧夫知의 나이가 매우 어렸고 그의 父이자, 누구보다도 그의 왕위계승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을 立宗葛文王이 이미 돌아간 상황 아래에서[37] 眞宗은 더욱 위협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무렵 眞宗의 동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뭏든 法興王26년(539) 立宗葛文王妃가 주도한 행차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견지에 서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 행차에 동행했던 사람이자 法興王 사후의 왕위계승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法興王妃에 쏠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法興王妃가 그 행차에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녀가 당시 그 행차를 주도한 立宗葛文王妃와 매우 밀착된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 행차가 法興王 사후의 왕위계승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리라는 앞서의 지적을 떠올리면 法興王妃가 深昧夫知의 왕위계승을 지지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일 줄 안다. 결국 眞宗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深昧夫知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法興王妃의 지지에 힘입은 바 컸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法興王妃는, 앞서 인용한 F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朴氏族의 女였다. 하지만 그녀의 自出에 대해서는 더이상 구체적으로 알 수가

37) 본고 p. 165 참조.

없다. 智證王妃의 父인 登欣伊湌과 어떤 혈연 관계가 있었음직도 하지만, 이점도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法興王妃의 지지는 곧 그녀를 중심으로 한 朴氏族의 그것을 뜻한다는 보아서 좋을 것이다. 이들은 동일한 혈족 집단의 구성원들로서 당시의 왕위계승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를 같이 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38]

여기에서 이들 朴氏族이 深昧夫知의 왕위계승을 지지한 까닭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H ① 法興王立 諱原宗冊府元龜姓募名秦 智證王元子 母延帝夫人 妃朴氏保刀夫人 王身長七尺 寬厚愛人 (『三國史記』 4 新羅本紀 法興王 원년)

② 眞興王立 諱彡麥宗或作深麥夫 時年七歲 法興王弟葛文王立宗之子也 母夫人金氏法興王之女 妃朴氏思道夫人 王幼少 王太后攝政(『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興王 원년)

이 기록에 따르면, 立宗葛文王妃(金氏只召夫人)는 法興王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法興王妃(朴氏保刀夫人)는 立宗葛文王妃의 母이자 深昧夫知의 外祖母였던 것이다.[39]

이와 같은 혈연관계로 미루어 볼 때, 法興王妃를 중심으로 한 朴氏族이 深昧夫知의 왕위계승을 지지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法興王 사후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유지·강화시키는 데 크게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朴氏族이 眞興王의 妃도 자신들의 씨족에서 배출함으로써 (H② 참조), 智證王·法興王代에 이어 眞興王代에도 왕비족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38) 혈족집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pp. 57~63,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硏究』, p. 145를 참조하라. 특히 李鍾旭은 혈족집단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39) 父系혈통으로 보면, 法興王妃는 深昧夫知의 伯母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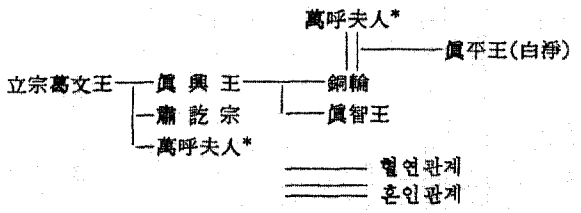
Ⅳ. 眞智王·眞平王의 王位繼承과 朴氏王妃族의 推移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智證王이 왕위를 차지한 이후 法興王—眞興王으로 이어지는 智證王系 家系의 성원들이 그것을 계승하여 가는 동안 朴氏族이 왕비족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과의 연합관계를 통해서였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眞興王이 왕위에 오르고 한동안이 지난 후부터 그와 같은 양자의 관계는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Ⅰ 眞平王立 諱白淨 眞興王太子銅輪之子也 母金氏萬呼一云萬內夫人 葛文王立宗之女 妃金氏摩耶夫人 葛文王葛勝之女 王生有奇相 身體長大 志識沈毅明達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平王 원년)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銅輪의 혼인 관계이다. 銅輪은 眞興王의 長子로서 同王 27년(566)에 太子로 책봉되었다.[40] 眞平王(白淨)은 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眞平王의 母는 立宗葛文王의 女인 金氏萬呼夫人이었다. 즉 그녀는 銅輪의 姑母이자 妃였던 것이다(圖 3 참조). 銅輪이 이렇게 近親婚을 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점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지 眞興王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銅輪이 朴氏族이 아닌 金氏族의 女와 혼인하였다는 사실만을 중시하고자 할 따름이다.

〈圖 3〉 銅輪의 혈연 및 혼인관계



40)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興王 27년 2월.

이와 같은 銅輪의 혼인은 智證王系 家系 출신의 국왕 또는 국왕이 될 사람의 혼인으로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智證王에서 眞興王에 이르는 국왕들이 모두 朴氏族의 女와 혼인하였다는 점만으로도 곧 이해가 가는 일일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朴氏族의 처지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銅輪이 眞興王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경우 朴氏族은 그 때까지 유지해 온 왕비족의 지위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智證王代 이후 지속되어 온 智證王系 家系와 朴氏族 사이의 연합관계가 이 때에 이르러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 사이의 관계의 변화는 眞興王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銅輪의 혼인이 그의 父인 眞興王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眞興王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 보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검토가 곧 양자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하여 당시 朴氏族과 眞興王 사이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朴氏族이, 智證王이 왕위를 차지하고 法興王—眞興王으로 이어지는 智證王系의 국왕들이 그것을 계승해 가는 동안 그들과의 연합관계를 통하여 왕비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들은 이와 같은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도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 같다. 특히 그들 가운데 智證王妃의 父인 登欣(登許)과 眞興王妃의 父인 英失은 伊湌에 올라 국왕의 아래에서 국사를 총괄하여 맡아보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1] 그밖에 당시의 여러 금석문에 보이는 姓氏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수의 유력한 귀족들 가운데에도 朴氏族 출신이 다

41) 당시 伊湌이 摠知國事하였다는 것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伊湌의 직능에 대해서는 申瀅植, 「新羅의 國家的 成長과 兵部令」, 『歷史學報』 61, 1974 ;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1984, pp. 145~150 참조.

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짐작이 가는 일이지만 당시 朴氏族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헤아려진다. 眞興王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그와 같이 강대한 세력을 보유한 朴氏族의 지지에 힘입은 바 컸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한편 眞興王은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母인 只召夫人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42] 그리고 그는 그 체제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심했던 것 같다. 그가 친정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력적으로 대외 정복사업을 수행해 나간 것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43]

眞興王이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朴氏族의 존재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비록 朴氏族이 眞興王의 왕위계승에 크게 이바지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강력한 세력은 또다른 측면에서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44] 이점은 朴氏族이 당시의 왕위계승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해가 가리라 믿는다.

이렇게 보아 오고 나면, 眞興王이 朴氏族과의 연합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계를 청산하고 나아가 그들 세력을 누르려 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결국 眞興王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銅輪太子의 妃를 朴氏族의 女 가운데서 택하지 않은 것

42) 李丙燾, 「眞興大王의 偉業」, 『韓國古代史研究』, 1976, p. 669, 村上四男, 「新羅眞興王と其の時代」, 『朝鮮學報』 81, 1976 ; 『朝鮮古代史研究』, 1978, p. 86,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 國家佛敎와 儒敎』, 1978 ; 『新羅思想史研究』, 1986, p. 65.

43) 이점에 대해서는 眞興王代 정치세력의 동향과 관련지어 稿를 달리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44) 당시 왕비족의 존재가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p. 23, 李基東, 「新羅 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p. 101 참조.

은 바로 그러한 의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眞興王이 자신의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왕위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즉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궁금하다.

이점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朴氏族의 女를 제치고 銅輪太子와 혼인한 金氏萬呼夫人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이를테면 그녀가 속해 있던 혈족집단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들이야말로 朴氏族의 세력을 누르려는 眞興王의 입장을 앞장서서 지지했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앞의 〈圖 3〉에 따르면, 銅輪太子의 妃인 萬呼夫人은 眞興王의 父이자 法興王의 弟인 立宗葛文王의 女였다. 즉 萬呼夫人은 眞興王과 男妹 사이였다. 우리는 萬呼夫人이 眞興王과 마찬가지로, 智證王系 家系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眞興王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주로 智證王系 家系 출신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眞興王을 포함한 智證王系 家系는 銅輪太子와 萬呼夫人의 혼인을 계기로 智證王代 이래로 누려온 왕족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銅輪太子가 예정대로 眞興王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경우 왕비족의 지위까지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智證王系 家系를 제외한 그밖의 혈족집단을 왕실에서 배제하고, 智證王系 家系만의 독존적이고 초월적인 왕실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은 銅輪太子가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死去하고, 眞興王의 次子인 舍輪(眞智王)이 왕위에 오르면서 수포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즉,

J 第二十五眞智王 名舍輪 一作金輪 金氏 父眞興 母朴英失角干之女 息途一作色刀夫人 朴氏 妃知刀夫人 起烏公之女 朴氏 丙申立 理四年 墓在京公寺北 (『三國遺事』 1 王曆)

이라고 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朴氏族이 眞智王代에도 여전히 왕비족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고 믿는다.

그러면 眞興王代에 왕비족의 위치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던 朴氏族이 眞智王代에도 왕비족으로 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점은 眞智王의 왕위계승 과정을 검토해 봄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 眞智王立 諱舍輪或云金輪 眞興王次子 母思道夫人 妃知道夫人 太子早卒 故眞智立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智王 원년)

이 기록에는 眞興王의 次子인 舍輪(眞智王)은 太子(銅輪)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眞興王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던 또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銅輪太子의 長子인 白淨—뒤의 眞平王—이 바로 그였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眞興王 사후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舍輪과 白淨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닐까 한다.[45] 여기에서 양자를 지지한 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白淨을 지지한 자들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그 구체적인 인물로서 우선 金后稷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L ① 金后稷 智證王之曾孫 事眞平大王爲伊湌 轉兵部令 (『三國史記』 45 金后稷傳)
② 以伊湌后稷爲兵部令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平王 2년 2월)

L①에 의하면, 金后稷은 智證王의 曾孫이었다. 그의 父나 祖父에 대해

45) 申瀅植도 이 시기에 「차남(眞智)과 嫡孫(眞平)간의 불화와 대립이 있었던 듯싶다」고 하였다(申瀅植, 「武烈王系의 成立과 活動」, 『韓國史論叢』 2, 1977;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1984, p. 113).

서는 알 수 없지만, 아뭏든 그가 智證王系 家系 출신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한 일이다. 그는 眞平王(白淨)을 섬겨 伊湌이 되고 兵部令에 전임되었는데, 兵部令에 임명된 것은 白淨이 왕위에 오른 직후의 일이었다(L②). 이점에 주목하여 보면, 그 관직은 白淨이 왕위에 오르게 된 데에 대한 論功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白淨의 왕위계승은 眞興王 사후에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白淨지지파와 舍輪지지파 사이에 생긴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믿어진다. 그렇다면 金后稷이 眞興王 사후의 왕위계승에서도 白淨을 지지했으리라고 보는 데에는 별 이의가 없을 줄 안다.

白淨을 지지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또 다른 사람이 伯飯과 國飯이다. 이들은 白淨의 同母弟였으므로 그렇게 보는 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 믿는다. 이들은 白淨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각각 眞正葛文王과 眞安葛文王에 책봉되었다.[46] 단정할 수는 없지만, 白淨과의 혈연관계로 미루어 볼 때, 그의 母와 男妹 사이였던 肅訖宗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圖 3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사람들은 모두 智證王系 家系 출신이었다. 그렇다면 眞興王 사후의 왕위계승에서 白淨을 지지한 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智證王系 家系의 성원들이었다고 보아서 좋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이들이 白淨의 왕위계승을 지지한 것은 白淨의 母이자 銅輪의 妃인 萬呼夫人이 바로 자신들의 家系 출신이었다는 앞서의 지적을 떠올리면 자연스러운 일로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결국 智證王系 家系의 성원들은 眞興王 이후에 銅輪—白淨으로 이어지는 眞興王 직계 후손의 왕위계승을 지지하였던 셈이다.

한편, 朴氏族은 眞興王 사후의 왕위계승에서 舍輪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당시 양자의 정치적 처지를 살펴 보면 곧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朴氏族이 당시 眞興王이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에

46)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平王 원년 8월.

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사정은 다르지만, 그러하기는 舍輪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眞興王 27년(566)에 銅輪이 太子에 책봉됨으로서 舍輪은 한동안 왕위계승권자의 위치에서 탈락한 처지에 있었다. 同王 33년(572)에 銅輪이 死去함으로서[47] 그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智證王系 家系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白淨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 朴氏族이 舍輪과 白淨 가운데 전자의 왕위계승을 지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朴氏族과 舍輪은 당시 정치적으로 거의 같은 처지에 있었으며, 또한 朴氏族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智證王系 家系가 白淨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朴氏族인 起烏公의 女와 眞智王이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면(J 참조), 朴氏族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舍輪의 왕위계승을 지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곧 朴氏族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眞興王 사후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舍輪측과 白淨측의 갈등은 일단 전자가 왕위에 오름으로서 막을 내렸다. 그것이 朴氏族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 컸으리라는 점은 다시 이를 나위가 없을 것이다.[48] 요컨대 朴氏族이 眞智王代에도 왕비족으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의 왕위계승을 지지했기 때문이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朴氏族은 그로부터 그다지 오랫동안 왕비족의 지위를 유지하지

47)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興王 33년 3월.

48) 물론 朴氏族만이 舍輪의 왕위계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도 居柒夫를 비롯한 奈勿王系 家系도 그를 성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舍輪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居柒夫가 上大等에 올랐다는 사실로부터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리라 믿는다(『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智王 원년 참조). 한편, 申瀅植은 이와 관련하여 眞智王이 居柒夫의 무력적 도움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申瀅植, 「武烈王系의 成立과 活動」, p.113).

는 못하였다. 『三國遺事』는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M ① 第二十五 舍輪王 諡眞智大王 姓金氏 妃起烏公之女 知刀夫人 大建八年丙申 即位(古本云十一年己亥 誤也) 御國四年 政亂荒婬 國人廢之 前此 沙梁部之庶女 姿容艶美 時號桃花娘 王聞而召致宮中 欲幸之 女曰 女之所守 不事二夫 有夫而適他 雖萬乘之威 終不奪也 王曰 殺之何 女曰 寧斬于市 有願靡他 王戲曰 無夫則可乎 曰可 王放而遣之 是年王見廢而崩 (『三國遺事』1 紀異 桃花女·鼻荊郎)

② 時人作詞曰 聖帝(眞智王)魂生子 鼻荊郎室亭 飛馳諸鬼衆 此處莫留停 鄕俗帖此詞以辟鬼 (同上)

즉 眞智王은 정국을 어지럽히고 荒婬하여 폐위되었다고 한다(M①). 그러나 이러한 폐위의 이유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점은 眞智王이 사후에 聖帝로 칭송되었다거나(M②), 그가 中代王室의 시조로 奉祀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곧 알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49]

그런데 眞智王을 폐위시킨 사람들은 「國人」으로 되어 있다(M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眞智王 및 朴氏族을 비롯한 그의 지지세력과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던 자들이었을 것임은 거의 의심할 바 없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그 장본인들로서 眞興王 사후의 왕위계승에서 眞智王(舍輪)과 경쟁 관계에 있던 白淨을 지지한 智證王系 家系의 성원들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眞智王이 왕위를 계승한 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眞智王이 폐위된 뒤 白淨이 왕위에 올랐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를 폐위시키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그 智證王系 家系의 성원들이었다고 보아서 좋을 줄 안다.

그러면 白淨을 지지해 온 智證王系 家系의 성원들은 어떻게 智證王을 폐위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이제까지 眞智王은 和白會議의 결정에 의해

49)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pp. 87~88 참조.

폐위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50] 그런데 M①을 자세히 살펴 보면, 眞智王의 폐위는 곧 그의 죽음을 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록의 내용 가운데 「이 해에 왕(眞智王)이 폐위되고 崩하였다」고 한 대목이 이를 말해 준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기왕의 견해에 따를 경우, 결과적으로 和白會議에서 眞智王을 죽일 것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朴氏族을 비롯하여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건재하던 상황 아래에서 和白會議가 생존해 있는 眞智王의 폐위—곧 그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던 和白會議의 구성원들 가운데 眞智王의 지지자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과, 나아가 眞智王의 왕위계승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居柒夫가 和白會議의 의장인 上大等의 직에 있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면 더욱 그러하다.[51]

이와 같은 견지에서 眞智王이 생존해 있을 때 그의 폐위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을 줄 안다. 즉 그것은 사실상 그가 죽은 뒤에 결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眞智王의 폐위 사실은 그의 집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智證王系 家系의 성원들이 政變을 일으켜 그를 살해한 후에, 정국을 어지럽히고 荒婬하였다는 구실을 붙여 和白會議에서 폐위시키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리없는 해석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眞智王의 폐위는 그를 제거한 것을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일으킨 정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眞智王은 제거되고 白淨(眞平王)이 왕위에 올랐다. 이것은 眞平王을 지지한 智證王系 家系와 朴氏族으로 대표되는 眞智王을 지지한 세력 사이의 대립에서 전자가 승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50)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p.80 참조.
51) 註 48) 참조.

며, 아울러 智證王代 이래로 지속되어온 양자 사이의 연합 관계가 막을 내렸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 생각되지만, 朴氏族은 眞平王代부터 中代를 거치는 동안 전혀 왕비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즉 그들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경쟁에서 智證王系 家系에 패배함으로 왕비족의 지위를 잃고 점차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朴氏族으로 대표되는 반대 세력을 누르고 권력을 장악한 智證王系 家系가 정치적으로—사회적·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겠지만—보다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다시 이를 나위가 없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왕위는 더욱 초월화되고, 아울러 왕권도 크게 강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眞平王代부터 왕권의 전제화가 급속히 진전된 것도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新羅上代 智證王系 왕위계승기의 朴氏王妃族의 등장과, 그들과 金氏王族과의 정치적 관계 등을 당시의 왕위계승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보았다. 이제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지배세력의 성격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함으로서 본고를 매듭지을까 한다.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智證王의 즉위는 智證王系 家系와 朴氏族의 세력 연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전자는 계속적으로 왕위를 독점하였고, 후자는 왕비족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는 智證王代에서 眞智王代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朴氏王妃族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여겨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智證王·眞興王·眞智王의 왕위계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이 시기를 智證王系 金氏王族과 朴氏王妃族의 연합 정권 시대였다고 보아서 좋지 않을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이 당시의 지배세력이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智證王系의 왕들이 왕위를 계승해 나가기 시작한 초기에는 왕권이 그다지 강력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奈勿王 직계 후손들을 비롯한 불만 세력은 여전히 왕의 주위에 상존하면서 왕권을 위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智證王은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서기 500년으로부터 한동안 국왕을 칭하지도 못할 정도였던 것이다.[52]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智證王系의 왕들은 지속적인 朴氏族과의 연합을 통하여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智證王代의 지방제도정비, 法興王代의 律令반포와 佛敎공인, 眞興王代의 대외정복사업의 수행 등은 모두 그와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왕비족세력이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은 朴氏王妃族의 지지가 당시의 왕위계승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朴氏王妃族은 왕권이 미약했을 때에는 왕권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였지만,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양면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왕권 강화에 누구보다도 힘을 기울였던 眞興王이 朴氏族과의 연합 관계를 청산하고, 그 세력을 누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다.

朴氏王妃族과의 연합 관계를 청산하고 智證王系 家系에 의한 강력한 정권을 이룩한 것은 眞平王代였다. 이것은 智證王代이래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왕권 강화의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眞平王代에 왕권의 전제화가 크게 진전된 것도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결국 智證王系 왕위계승기의 朴氏王妃族의 존재는 귀족 연합적인 성격의 上代社會에서 전제 왕권으로 상징되는 中代社會로의 이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52) 註 20) 참조.